

# 강진군 50두 이하 중소 한우농가 지원 강화

### 강진원 군수 간담회...소득 안정 의견수렴 창구 운영키로 "90% 이상 중소농가...한우산업 뿌리" 맞춤형 지원 나서

강진군이 중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을 강화해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은 특히 기존 50마리 이상 대규모 기업농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고, 영세농 중심의 지원에 나서면서 인근 타 지자체 축산농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우분야 사업을 한우개량과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 등 한우산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한편 50마리 이상의 전·기업농보다는 준전업농이나 부업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강진군이 중·소규모농가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는 것은 50마리 이상의 전업농이나 기업농은 기존의 지원사업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한우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에도 규모가 영세해 전문화·규모화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은 중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높이고, 한우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중·소규모 한우사육 농가의 소득안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0마리 미만 한우사육농가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로사항 청취 및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 한우사육농가의 90% 이상이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중·소규모농가이며, 이들은 주로 암소를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우산업의 기반을 지탱하는 뿌리"라면서 "지금까지는 사육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지원사업을 추진한 탓에 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은 지원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육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 한우산업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또 한우산업 관계자들에게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단체나 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운영해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 중·소규모농가들로 구성된 '한우사랑농가모임' 한강식 회장은 "예년에는 한우분야 지원사업이 주로

사육두수가 많은 농가 지원이 많이 받은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면서 "인근 지역 축산농가들에서도 이번 지원 효과 등에 관심이 높은 만큼 군의 지원을 계기로 적극 노력해 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2017년 본예산에 50마리 이하의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소규모 한우농가 계통출하 운송비 지원'사업과 '한우 등급향상 육질개선제 공급',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등 3종 사업비 2억여원을 투입·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제1회 추경에도 '한우개량 가속화 지원사업'과 '한우농가 소진료비 지원사업', '송아지 방한복 구입비 지원사업' 등 3종의 사업 1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 영암경찰·교육지원청 아동안전협의회

영암경찰청은 "최근 영암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경찰서·교육지원청 합동으로 군청, 학교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아동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암지역 아동안전협의회는 '경찰서-교육지원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관 연계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안전관련 문제를 비롯한 영암경찰이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교육청이 운영하는 배움터 지킴이간 연계·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건화 서장은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 영암 호남권 첫 드론교육원 개원

### 에어콤, 실내강의장·야외실습장 조종사 양성 교육

영암지역에 드론교육원이 개원해 본격적인 드론 조종사 양성에 들어갔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에어콤은 지난 14일 영암읍에서 실내강의장과 야외실습장을 갖춘 드론교육원 개원식을 했다.

이번 개원식 행사에는 에어콤 김중열 대표와 전동평 영암군수, 영암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군의원, 드론관계기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영암군은 이번 드론전문교육원이 개원하기까지 교육원 신청단계에서부터 드론산업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설명하고 교육장 확보와 국토부 현장점검 시에

도 (에어콤 측과 공동 노력해 호남권 최초로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전문교육원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영암군은 또 현재 진행중인 드론파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파크조성 적정 후보지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누구나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드론전시, 대회 개최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드론 조종인력 양성도 드론테스트 베드를 갖추고 다양한 기능의 드론 성능 시험이 모두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특색있는 드론파크도 조성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 장흥 물축제 태극 송크란축제 교류 물길 뿔다

### 김성 군수 등 현지 방문 협의

대한민국 대표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세계를 대표하는 물축제인 태극 송크란 축제가 한자리에서 만났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 13일 태극 푸켓 관광청(청장 유포트 립사쿨)을 찾아 송크란 축제와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단계적 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상호 방문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최근 태극 송크란 축제 개막식에 초청돼 개막 퍼포먼스 행사에 공식 참여했다. <장흥군 제공>

특히 김성 장흥군수와 이금호 물축제추진위원회 등 장흥군 일행은 푸켓 지역의 송크란 축제 개막식 현장에도 초청을 받아 개막 퍼포먼스 행사에 공식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장흥군 방문단은 카조키 옛 락파나미니 푸켓주지사 직무대행과

축제 관계자들을 만나 우의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태극 송크란 축제는 매년 4월 13일~15일에 열리고 있으며,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 탐진강과 정남진 변백수 우드랜드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와 지상최대의 물싸움,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장흥군-농어촌공사 장흥농공단지 인수인계 공방

장흥군과 농어촌공사가 4%대의 저조한 분양률에 머물고 있는 '장흥농공단지'의 인수인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17일 장흥군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장흥군과 농어촌공사간 상호 조성사업 실시협약 체결에 따라 총 116억원(농어촌공사 80억원, 국·도비 36억원)을 들여 장흥군 부산면 금자리 일원 9만7962㎡ 규모의 농공단지를 착공해 지난 2013년 1월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5년째 접어들었는데도 경기침체와 양 기관의 분양 전략 부재 등으로 준공 첫해인 2013년 수산식품가공업 중 1곳과 지난해 1월 섬유제품제조업 1곳 등 2개블럭(4214㎡)만 분양·입주한 상태다.

더욱이 농공단지가 취약한 위치에 있는 데다 농공단지를 드나드는 진입로마저 협소해 미분양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난 2009년 12월

장흥군과 농어촌공사는 농공단지 준공인 가 후 공동분양에 책임지고 분양 50%초과 달성시 해당 지자체(장흥군)에 인수인계 한다는 내용의 실시협약 조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흥군은 "농어촌공사가 부지조성 당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지원 협조를 다한 만큼 농어촌공사가 부지조성(토목공사)만 치중했지 분양에 따른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준공후 지금까지

### 조정 5년째 분양률 4% 불과 양기관 책임·관리 떠넘기기

4년여 공동분양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50% 이상 분양되기 이전에는 인수인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측은 "애초 양 기관 실무협약서상 농공단지 준공 이후 조건 없이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한다"며 "조성비(8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 강진군 '유아들이 즐거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진군이 운영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인 숲체험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과 각 학교 병설유치원 16개소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날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몸으로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문화로,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진군은 특히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이 일정한 장소에서만 진행하면 단조롭고 지루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은산을 비롯한 세계모란공원 일대,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숲체험, 칠랑면 초당림의 국내 최대 조림지 등 강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연적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40여회의 숲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연인원 4000여명이 무료로 참여할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700,000,000**

광산구 오선동 공장(전곡산업단지내)



대지 2531평  
건물 753평

최저가 4,278,000,000  
감정가 6,112,000,000

서구 치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정가 3,406,000,000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대지 415평  
건물 577평

최저가 2,521,000,000  
최고가 4,502,000,000

서구 화정동 원룸(화정역인근)



토지 94평  
대지 157평

최저가 784,000,000  
감정가 784,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암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자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